

광주·전남 교육의원 예비후보 20명 등록

광주 5명·전남 15명… 선거전 본격 점화
선거구 방대·직선제로 출마기피 현상도

6·2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 교육의원 선거 입지자 20명이 예비후보로 등록(2월26일~5월12일)하는 등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자진타천으로 이를 이르내렸던 상당수 입지자가 국회 의원보다 넓은 선거권역에 막대한 선거비용, 빈약한 조직력 등을 이유로 뜻을 접는 등 출마 기피 현상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7일 광주시·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현재 광주에서는 4개 선거구에서 모두 5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광주는 기준 7명에서 4명으로 교육의원 수자가 줄었다.

1선거구(동·남구)에는 임동호(66) 전 삼도초교 교장이 '나홀로' 예비 후보로 등록했으며, 3선거구(북구)에는 윤광현(62) 전 광주시교육청 교원정책과과장과 박기훈(68) 시 교육위원이 등록했다. 4선거구(광산구)에는 박인화(63) 전 운남초 교장과 오덕렬(64) 광주수협 회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끝내고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2선거구(서구)는 예비후보 등록자가 없는 상태다.

기준 9명에서 4명이 준 5명을 선출하는 전남은 5개 선거구에서 15명이 예비 후보 등록을 했다. 1선거구(목포·신안·해남·완도·진도)에서는 박병학(74) 도 교육위원, 김봉근(68)

(64) 전 순천교육장이, 4선거구(나주·영암·무안·영광·함평·장흥·강진)에는 유재원(64) 도 교육위원과 박봉민(58) 전 민천초교 교사가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다.

5선거구(광양·담양·장성·곡성·구례·화순)에는 민병홍(50) 도 교육위원과 배병재(61) 전 구례교육장, 허영석(62) 전 장성실고 교장이 등록을 끝내고, 세 모으기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예비후보 등록자가 단 한명도 없는 등 출마기피 현상이 감지되고 있다.

이는 방대한 선거구와 첫 직선제에 따른 빈약한 조직력, 막대한 선거비

등으로 선거운동은 힘든 반면 유권자의 선거 무관심으로 인물이나 공약보다는 민주당을 연상하는 두번 째 순서의 후보자를 찍는 이름바 '물지마' 투표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광주에서 교육의원 출마를 고민중이라는 한 교육계 인사는 "넓은 선거구에 따른 수억원의 선거자금 등을 생각하면 업무가 나질 않는다"면서

"특히 교육의원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마저 저조해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그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경기지사 일당독주 저지' 합의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6.2 경기지방자치희망연대 출범식에 참석한 (왼쪽부터) 민주당 김진표, 이종걸, 민노당 안동섭, 진보신당 심상정 경기지사 후보. 야권은 '일당독주 저지하자'는 원칙에는 합의점을 찾았으나, 광역단체장 후보는 서로 자신의 당에서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명숙 전총리
오늘 첫 재판

광영숙(69·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65) 전 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첫 재판이 8일 열린다. 법원은 주 2~3회 재판을 열고 내달 9일 유무죄를 선고할 예정 이어서 재판 결과가 한 전 총리의 출마가 유리시되는 6월 서울시장 선거에서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우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가 출석한 상태에서 첫 재판을 열어 모두(冒頭)절차와 증거조사를 진행한다.

/연합뉴스

野 광역단체장 후보 배분 '異夢'

민주·진보신당 수도권 후보 놓고 대치

6월 지방선거의 연대를 추진 중인 야권이 광역단체장 후보 배분을 놓고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의 선거연합의 기구인 '아5당 협상회의'는 7일 모임을 갖고 기초단체장 후보 배분 문제에 대해 우선 논의한다.

광역단체장은 정파별로 입장이 절 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먼저 배분이 용이한 기초단체장 후보부터 선정하려는 것이다. 아5당의 지역별 선거연합 방식 합의시한은 오는 15일이다.

보고 있다.

하지만 진보신당은 적어도 한 곳을 다른 야당에 양보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경우에 따라 '선거연대 탈퇴'도 고려할 수 있다는 강경한 태도이다.

진보신당 관계자는 "민주당만의 선거에 다른 당이 들러리설 순 없다"고 말한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 후보가 아니면 한나라당 후보를 선출하는데 공감대를 갖고 있다.

그러나 광역단체장 후보 배분에서는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우선 민주당과 진보신당은 수도권의 후보 선정방식을 놓고 대치하고 있다. 민주당은 경쟁방식을 채택하면 지지율이 높은 자당 후보가 수도권 광역단체 3곳에 모두 낙점될 것으로

/연합뉴스

보고 있다.

하지만 진보신당은 적어도 한 곳을 다른 야당에 양보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경우에 따라 '선거연대 탈퇴'도 고려할 수 있다는 강경한 태도이다.

진보신당 관계자는 "민주당만의 선거에 다른 당이 들러리설 순 없다"고 말한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 후보가 아니면 한나라당 후보를 선출하는데 공감대를 갖고 있다.

그러나 광역단체장 후보 배분에서는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우선 민주당과 진보신당은 수도권의 후보 선정방식을 놓고 대치하고 있다. 민주당은 경쟁방식을 채택하면 지지율이 높은 자당 후보가 수도권 광역단체 3곳에 모두 낙점될 것으로

강운태 "컷오프 없는 원샷경선 치르자"

전갑길 "클린광주 프로젝트 만들것"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7일 광주 시장 경선 방식과 관련, "시민들이 주체가 되고 공천권을 갖는 '컷오프 없는 원샷 경선'을 치르자"고 제안했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당에서 시민배심원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모두를 아우르는 혼합형 방식인 '당원전수조사(40%)+시민여론조사(30%)+시민공천배심원제(30%)'로 하되 경선을 한 번에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전갑길 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7일 "시민사회와 시정 참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보장하는 '클린 광주 프로젝트'로 광주를 대표적인 청렴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 예비후보는 "순수 민간전문가의 입찰·공사·정책 입안 등 시정 전반에 걸친 모니터링과 결과 공표를 보장하는 '클린광주 프로젝트' 협약으로 부패의 근원을 제거하겠다"며 "청렴 행정으로 시민의 애환심과 자긍심을 높여 광주를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문일 "한나라 전남지사 공정경선을"



한나라당 김문일 전남도지사 예비후보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각에서 중앙당 이름을 팔면서 특정인의 전략공천설을 흘리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전남에서 특정인을 전략공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어 "김기룡 전남도당위원장은 도민과 당원에게 '중앙당이 특정인을 전략공천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말고 시군구 후보 영입 등 위원장직에 충실히 달라"고 덧붙였다.



조영복 "주거환경사업 조속 추진을"



조영복 민주당 광주 동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동구의 인구가 줄고 있는 것은 지지부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 예비후보는 "지방재와 특별교부금 등의 일반적인 대책만으로 수백억 원이 소요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현실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면서 "우선 북구와의 구간 경계 조정을 통해 인구를 확보하고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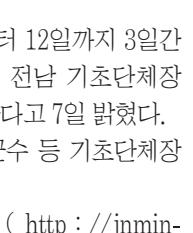
윤봉근 지역발전 대학 참여 유도

유봉근 민주당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최근 광주 광산구 지역 내 4개 대학 교수들이 자신을 지지하는 선언을 했다"면서 "이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교육여건의 개선과 지역발전에迈进하는 지역민들의 여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예비후보는 "선거용 공약의 남발보다는 지역발전과 관련된 정책개발에 고급 두뇌집단이 이들 대학의 참여를 적극 유도함과 동시에 연계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창종 "온라인 정책토론 열겠다"



유창종 민주당 담양군수 예비후보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터넷 홈페이지(www.yuchangjong.kr)가 개설됨에 따라 '정책제안' 코너를 이용해 토론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첫 정책 토론 주제는 '통학 택시' 도입이다. 고교생들이 야간 자율학습이 끝난 뒤 학부모들이 직접 학생들을 귀가 시키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택시회사와 계약을 맺어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없애고 택시회사에도 경제적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민주 전남도당 기초장 후보 등 공모

민주당 전남도당은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남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공모대상은 전남지역 시장 및 군수 등 기초단체장과 도의원, 시·군의원 등이다.

서류교부는 전남도당 홈페이지 (<http://jnminjoo.kr>)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되고 전남도당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후보자 등록신청비는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기초단체장은 300만원, 광역의원은 90만원, 기초의원은 60만원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바다공인증개사

☎ (063)581-5909
☏ 010-8004-5900

(전국 사례인, 세민금 전문업소)

세민금...변사...고금...격포...상금...
모수금...증인금...부자금...부자금

▶ 펜션금(투자, 직영, 임대)

• 대지 300평 건물 140평
: 매매 7억

- 임시연금 월 수입

최저 1300만원 이상 발생

- 월자 2억 이상 가능

▶ 투자용 펜션금

• 150~300평
: 평당 50~100만원

- 해수욕장 주변으로 배선임수

를 갖춘 비단이 보이는 전망 좋

은 곳으로 투자 최적화

▶ 투자용 전원주택

• 150~300평
: 평당 25만~35만원

- 세민금 길집지역을 탈피

하고 헌가로운 전원주택지

를 찾는 수요가 날로 증가하

고 있는 실정임.

④ 세민금 관광시대 일박으

로 펜션투자시 광주지역

원통부지의 절반 금액으

로 수입은 3배이상 금리

는 낸 25%이상 보장되는

물건만 취급

⑤ 2010년 4월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 개통으로 지

금이 투자여기!

최고급 전원주택매매

(최고급 건축자재 사용)

● 위 치 ●

회원은 전대별로 민족별로 광주에서 10월 가인 8자선으로 확장광사증 도보로 전대방을 원의 시설 이용 가능 민연산, 무등산, 자락에 위치하여 드신, 신록로 이용이 편리하고 공기호흡과 편안한 전원생활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환로 화씨를 100% 사용하고 습도조절, 온도조절이 되어이며 수면후 민성피로 회복 이후 좋고 주인의 직업으로 건강을 생활하여 정성스러운 것은 집입니다. (의사, 변호사, 교수, 퇴직자 회복)

매매가 : 6억 8천만원

(조정 가능)

* 대지 : 250평 * 건평 : 73평

* 지하 1층, 지상 2층(복층)

* 주차 고급 자동문 시설

차량 2대 가능